

「완산도형」에 구현된 초기 개신교 전주스테이션 공간 연구*

김경미**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화산 이주 시기와 공간 배치 |
| 2. 완산 성역화와 완산도형 | 6. 맺음말 |
| 3. 초기 개신교 전주 정착 | 참고문헌 |
| 4. 완산도형으로 보는 전주스테이션 | <Abstract> |

국문초록

「완산도형(完山圖形)」은 고종의 ‘완산’ 성역화 추진과정에서 그려진 것으로 1900년을 제작시기로 추정한다. 무엇보다 이 지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은 우측 산자락에 ‘미국인점유처(美國人占屋處)’라는 첨지(添紙)가 있고, 초가집과 기와집을 구분한 숫자 ‘와가삼처 초가오처(瓦家三處 草家五處)’까지 상세하게 병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장처인 장서각에서는 “전라도 전주의 부성과 미국인 선교사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제작된 회화식 지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선교사들이 전주정착을 준비하던 시대적 상황과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관점으로 「완산도형」에 주목하였다.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시기는 국가의 정치·외교적 혼란기였고, 특히 전주정착을 준비하던 시기는 동학농민혁명 전후의 기간과 맞닿아 있

* 이 연구는 전북연구원 「2024년도 전북학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전주대학교 관광외식서비스연구소 연구교수, Email: goldenant@jj.ac.kr

다. 따라서 초기 개신교의 역사는 단편적인 종교자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서구 식 교육·의료선교를 통한 근대화 형성과정과 민중개혁의 역사를 세계사적 시각으로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완산도형』에 구현된 지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초기 전주스테이션 위치를 현재 시점 지도 위에 표시하였다. 또한 전주스테이션에 마련되었던 정주공간의 조성 연혁 및 건축물 목적별 활용사례를 선교사들의 다양한 기록(보고서, 편지, 일기 등)에서 찾아 규명하였다. 나아가 화산(華山)으로 이전(移轉) 직후 조성한 공간배치 결과를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이로써 초기 개신교 전주스테이션 완산시대의 시작부터 마감까지 시·공간 조성과정을 살핀 성과적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주제어 : 완산도형, 초기 개신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전주스테이션, 청학산

1. 머리말

『완산지(完山誌)』에 따르면 완산은 남쪽 고덕산으로부터 뻗어 나와 도시의 안산(案山)이 되었으며, 전주부의 남쪽 3리에 있다.¹⁾ 완산은 전주의 옛 지명이기도 하니, 고려시대 문장가 이규보는 그리 크지 않은 산에서 고을 이름이 온 것을 기이하다고 적은 바 있다.²⁾ 오늘날은 완산을 구성하는 봉우리를 중심으로 ‘완산칠봉(完山七峯)’이라는 이름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완산도형(完山圖形)』³⁾은 전주성을 중심에 두고 완산과의 거리 및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멀리서 조망하여 그린 지역도다. 지도를 구성하는 단위 소재는 ‘전주성의 안과 밖’, ‘도시를 감싸 안은 완산칠봉의 위용’, ‘전주천을 건너 성의 남서쪽에 형성된 마을’ 순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회화적 구도를 갖고 있다. 전주성 안에는 조경묘와 경기전, 그리고 관청의 묘사가 간략한 반면 완산의 주봉에서 좌우로 뻗어나간 칠봉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곧지

1) 전주시·전주문화원, 2009, 『完譯 完山誌』, 신아출판사, 34쪽. “自州南高德山來爲 府之案山 在府南三里”.

2) 김상훈, 류희정 옮김, 2005, 『남행월일기(1201년 3월)』, 『조물주에게 묻노라』이규보작품집2, 보리. 407~416쪽.

“전주에는 중자산(中子山)이라는 산이 있어 초목이 아주 울창한데 이 고을의 큰 진산(鎭山)이다. 이른바 완산은 그중 조그마한 봉우리 이름이다. 한 고을 이름이 여기서 생기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다.”

3) 연구의 중심이 되는 자료로서 연속적으로 언급되어야 함에 따라, 이후 기록에서는 『』를 생략하기로 한다.

산(坤止山)과 투구봉(冑峯)을 비롯하여 현재는 이름이 전하지 않는 검도봉(劔刀峯)⁴⁾이 적혀 있어, 전주 성내를 자세하게 그린 다른 지도들과 차별된 용도로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 완산도형(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아울러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은 주봉에서 서북쪽으로 내려온 산자락에 ‘미국인점옥처(美國人占屋處)’라는 별지가 붙어 있고, 상세하게는 초가집과 기와 집을 구분한 숫자 ‘와가삼처 초가오처(瓦家三處 草家五處)’까지 병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도의 소장처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는 “19세기 말 전라도 완산의 부성과 미국인 선교사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제작된 회화식 지도”라

4) 완산도형에서는 매화봉이 내려와 투구봉을 도달하기 전 길쭉한 칼모양의 산자락에 검도봉이 표기되어 있다. 이는 현재 약수터로 향하는 마을과 구분되어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차도로 바뀌어 있는데, 그 경사도나 지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다. 장군봉·갈봉·투구봉은 풍수상 한 세트처럼 명명된 경우가 많다. 완산의 경우 장군봉과 투구봉은 현재도 불리고 있으나, 완산도형에 적힌 검도봉은 다른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아 이미 사라진 이름이다. 대신 외칠봉 방향으로 검무봉(劔舞峯)이라는 이름이 전하고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⁵⁾

완산도형의 오른쪽 목책에 둘러싸여 표기된 미국인점옥처는 초기 개신교 선교를 위해 정착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전주스테이션’을 나타낸 것이다. 미션 스테이션(Mission Station)은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이 전국 각 지역에 선교활동을 위해 세운 거점을 의미한다. 즉 스테이션은 선교와 의료, 교육의 기능이 각자 유기적으로 조합된 복합 선교지구였다.⁶⁾ 전주스테이션은 교회를 통한 선교, 교육을 통한 근대교육 제공, 의료를 통한 근대적 치료라는 스테이션 전략으로써, 전주가 근대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⁷⁾

완산은 1894년 고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이자, 전주입성의 진군로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1893년부터 전주 완산 언덕에 정착을 시도한 선교사들은 동학농민혁명 기간과 겹쳐 철수함에 따라 정착지 개척의 시기가 늦어진 바 있다. 이곳에 마련한 최초의 교회는 전주서문 교회의 전신이며, 이후 완산 성역화 과정에 따라 화산으로 이전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완산에 세워졌던 전주스테이션의 정확한 위치나 연혁에 대한 선행연구는 진척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교사들이 정착한 전주스테이션의 지리적 위치를 탐색하기 위해 완산도형에 그려진 공간표현을 단서로 활용하고자 한다. 객관적인 신뢰성 확충을 위해 시기별 지도는 물론 선교사들의 공식적인 보고서, 개인적인 편지, 일기, 사진 등의 기록을 교차·비교하여 탐색할 것이다.

2. 완산 성역화와 완산도형

1) 완산도형 제작 경위

고종은 대한제국 설립 이후 황실의 고향 전주를 성역화하기 위해 오목대, 이목대, 완산에 각각 비를 건립하였다. 완산도형에는 산의 위용을 표현한 ‘완

5)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1899년 이후, 지본채색, 표지 26.2x19.0cm, 화면 55.7x46.0cm”

6) 원도연, 2012, 19세기 미션스테이션의 근대성과 기념의 문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35-75쪽. 재인용; 송현강, 2008, 충청·전라지역 기독교 문화유산의 현황과 내력,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06쪽.

7) 이은선, 2019, 해방 후 전주스테이션과 장로교회들이 전주 발전에 미친 영향, 『한국교회사학회지』제52집, 한국교회사학회, 109~148쪽.

산칠봉(完山七峯)’, 비를 세운 자리를 나타내는 ‘수비(豎碑)’, 조금 아래에 ‘산신당(山神堂)’의 위치를 표기하였고, 북쪽으로는 숲정이를 나타내는 ‘수(藪)’와 조경단이 조성된 ‘건지산국내(乾止山局內)’가 적혀 있다. 성스러운 장소임을 나타내는 금표의 성격을 지닌 ‘완산’ 비를 세운 후 어람용으로 그려졌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의 황실 성역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의미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풍수적 형국과 추진현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기록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림 2〉 비를 세운 자리를 표시한 ‘수비(豎碑)’(좌), 이완용이 적은 ‘완산(完山)’비문 탁본(우)⁸)

『고종실록』에는 완산의 성역화를 위한 논의과정이 기록되어, 그 사업의도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기록에 나타난 시기별 주요 안건을 정리한 것이다. 1899년 7월 11일 기록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관찰사 이완용에게 비문을 쓰도록 하였다. 이완용이 전라북도관찰사로 재임한 기간은 1898년 3월 11일부터 1900년 7월 22일까지다.

8) 완산비는 황방산에서 떠온 단갈(短碣)로 조성되었고, 전라북도 관찰사 이완용이 비문을 적었다. 이후 친일행적 때문인지 비(碑)의 원형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지만, ‘설봉묘표(雪峰墓表)’(장서각 소장) 표제하에 탁본(72.1x149.0cm)으로 남아 있다. 장서각 한국학 자료센터, 한국학중앙연구원, 유형분류 > 금석문 > 완산비.<<https://royal.aks.ac.kr/UCI/Contents?Uci=G002+JSK+KSM-WH.1900.4511-20180415.25352> (검색일 2024.10.14.)> 또한 ‘어사묵전(御賜墨氈)’이라는 탁본첩(개인소장)에서도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비신 측면의 해서(楷書)는 보이지 않고 전면 탁본(41.2 x 152.2cm)의 모습으로, 전주역사박물관에서 2014년 7월 24~9월 28일까지 진행한 「완산칠봉과 완산동 사람들」이라는 기획 전시에서 공개된 바 있다.

<표 1> 『고종실록』에 기록된 완산비 건립을 위한 논의 과정⁹⁾

기록일	내 용
권11, 고종 11년(1874) 10월 12일(신사)	이조 정랑 황기원이 정묘(正廟) 병오년 조경묘에 비를 세우고자 전라 감사에게 수의를 올리라 명하였으나, 실행된 결과를 알지 못하고, 다음 어 놓은 들은 있는 현황을 보고함. 이에 따라 경기전과 조경묘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아뢰며, 전주 부의 완산은 우리나라의 발원지임을 강조함
권39, 고종 36년(1899) 양력 5월 27일	전주에 있는 조경묘와 경기전, 조정단을 봉심하고 온 궁내부 대신 이재 순을 소견하고, 오목대와 완산에 기적비를 세울 것을 논의함
권39, 고종 36년(1899) 양력 7월 11일	조경단을 봉심한 재신 이재곤과 의정(議政) 이하를 소견. 동학 때 유실된 기존 완산비 앞면에 ‘완산’ 두 글자와 뒷면에 ‘기해오월립’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보고받고, 원래 단갈(短碣)이었으니 황방산에서 떼오고, 비문은 전라북도 관찰사 이완용이 써서 올리라 명함. 완산에 미국인이 지은 집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를 하문하고, 신중해야 할 곳에 외국인인 와서 사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므로 도신과 상의하여 좋은 말로 타일러 값을 주고 사서 허물어버려 다시는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
권45, 고종 42년(1905) 양력 6월 25일	조경단을 봉심하고 온 이재극을 소견, 완산의 집은 어떻게 되었던가를 하문하니, 양인들이 간 후 창문이 찌그러지고 벽이 무너졌으며 문짝이 못쓰게 되어 값을 받고 헐어서 공사비를 보태는 문제를 도신과 논의하였음을 보고함

<그림 2>에 제시된 비문의 탁본자료는 ‘완산(完山)’ 두 글자가 전서(篆書)로 쓰여있고, 비신의 측면에 “광무4년 경자이월 일(光武4年 庚子二月 日). 정이품(正二品)자헌대부(資憲大夫)전라북도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신이완용봉칙근서(臣李完用奉勅謹書)”라는 문구가 해서(楷書)로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완산비는 1900년 2월에 조성되었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완산도형이 제작된 시기도 1900년(光武4년, 庚子年)으로 보아야 한다. 동학 때 유실된 기존 완산비 뒷면에 ‘기해오월립(己亥五月立)’이 적혀 있던 것을 언급하며, 기해년인 1899년에 재건립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칭송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기해년에는 세우지 못한 것이다.¹⁰⁾

또한 완산도형에 별지를 첨부하여 ‘미국인점옥처’를 표시한 것은 다른 한 가지의 목적과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1899년 7월 11일 “완산에 미국인이 지은 집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하문에 대한 현황

9)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10) 연구과정에서, 기존 유실된 완산비에 ‘己亥五月立’ 다섯 글자가 새겨있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적어도 60년 또는 120년 이상의 기해년일 가능성을 두고 탐색하였으나, 연관된 기록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보고의 성격을 담았다. 더불어 “좋은 말로 타일러 값을 주고 사서 허물어 버려 다시는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는 필요에 따라, 미국인 거주영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권역은 1893년부터 완산에 정착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부를 일컫는 ‘전주스테이션(Jeonju Station)’이 자리 잡은 곳이다. 선교사들의 정착 연혁과 스테이션 조성과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3장에서 기술하게 될 것이므로, 이번 장에서는 당시 전주에서 의료선교사로 활동했던 마티 잉골드(Mattie B. Ingold)가 기록한 정부와의 이주 협상 과정 부분을 발췌하여 <표 2>에 정리하여 살핀다.

<표 2> 『마티 잉골드 일기』¹¹⁾에 기록된 이주 협상 진행 과정

기록일	내 용
1899년 8월 1일	황제는 언덕에 있는 우리 터전에 왕조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한다. 황제의 시조 고향이 전주이고 그의 묘가 여기에서 2~3마일(3~5km) 떨어진 곳에 있다. 황제는 이 집들의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다른 장소를 제공하겠지만 우리는 건물 이외의 다른 문제들과 걱정, 그리고 우리가 겪을 불편함과 우리 사역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조정에 대해 불편이나 불만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만약 황제가 이 장소를 원하면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 ¹²⁾
1900년 3월 14일	여기 우리 집들을 정부에 매각하는 협상이 거의 끝나가 우리는 가능한 빨리 건축계획을 세우고 집을 짓기 위해 분주해질 것이다. ¹³⁾
1900년 4월 2일	한국 정부와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재산에 대한 매각을 모두 끝내 약 10개월 안에 집을 비울 예정이다. 지금 레이놀즈 선교사는 서울에서 그 일을 협상해 바로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계약을 맺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리를 매우 우호적으로 대해 여기에 있는 우리 재산에 대한 모든 지불을 완료했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이주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새 건물 부지를 제공했다. ¹⁴⁾
1900년 4월 24일	레이놀즈 선교사는 부인과 아이 그리고 나를 여기에 홀로 남겨둔 채 서울로 가서 4주간 지냈다. 그동안 아기는 몸이 좋지 않았고 크게 좋은 일은 없었는데 일주일 전에 그가 돌아오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뻐했다. 그가 우리 재산의 매각과 새집 건축계약을 마무리해 오늘부터 현장에서 건축이 시작되었고 기초를 쌓기 위한 준비로 땅고르기를 하고 있다. ¹⁵⁾
1900년 5월 1일	정부 당국이 일을 너무 느리게 처리해서 우리 건축은 연기됐다. 이미 시작은 했지만, 우리의 성탄절 만찬을 새집에서 갖지는 못할 것 같다. ¹⁶⁾

11) 고근 옮김, 2018, 『마티 잉골드 일기』, 예수병원. 이 도서는 일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전주교회 최초의 의료선교사로 도착한 마티 잉골드의 개인기록 미셔너리 기록문, 메모, 연간보고서, 퍼스널 리포트, 기타 인터뷰 기사 등을 포괄하여 수집·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표 2>는 번역서 내용을 인용하였고(쪽수 표기), 동시에 각 내용은 주석을 통하여 원문의 출처를 병기하였다. Mattie B. Ingold는 미혼의 의료선교사로 1897년 11월 3일 전주에 도착했다.

1899년 8월 1일 기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선교사들은 고종실록에 기록된 7월 11일 논의 이후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부로부터 이주해야 할 이유에 대해 전달받았다. 당시 전주스테이션에 소속된 선교인원은 아기 1명을 포함한 총 8명이었고, 선교부를 이끌던 책임자는 레이놀즈(W. D. Reynolds) 선교사였다.¹⁷⁾ 따라서 이주와 관련된 정부와의 협상은 레이놀즈 선교사가 서울에 올라가서 진행하였고, 거의 4주간의 기간이 필요했다. 1900년 3월 14일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4월 2일 지불과 매각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면, 3월 초부터 거의 한 달 동안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완산비를 설치하고 완산도형이 제작된 직후라는 기간 해석이 가능하다.

2) ‘미국인점옥처’ 위치 해석

완산도형에 ‘미국인점옥처’로 표현된 전주스테이션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남면(府南面) 은송리(隱松里) 완산자락이라는 내용 이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까닭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산도형이 산세와 지형을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19세기 무렵의 전주지도를 비교·분석하여 지리적 위치 해석을 시도하였다.

-
- 12) 고근 옮김, 2018, 앞의 책, 134쪽. (원문출처; *Personal Report of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in Korea, 1892-1986*, Vol. 18, Mattie B. Ingold., pp.159, 韓國基督教歷史研究院 編)
- 13) 고근 옮김, 2018, 앞의 책, 158쪽 (앞의 *Personal Report*, Vol. 18, Mattie B. Ingold., pp.170.)
- 14) 고근 옮김, 2018, 앞의 책, 159쪽 (앞의 *Personal Report*, Vol. 18, Mattie B. Ingold., pp.171.)
- 15) 고근 옮김, 2018, 앞의 책, 161쪽 (앞의 *Personal Report*, Vol. 18, Mattie B. Ingold., pp.172.)
- 16) 고근 옮김, 2018, 앞의 책, 162쪽 (앞의 *Personal Report*, Vol. 18, Mattie B. Ingold., pp.172.)
- 17)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from The Executive Committee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1900*, Nashville, Tennesse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Year April 1, 1899, To April 1, 1900)
 “Rev. and Mrs. W. D. Reynolds, Jr., Rev. L. B. Tate, Miss Mattie S. Tate, Miss Mattie B. Ingold, M.D., Rev. and Mrs. W.B. Harrison are our laborers for this part of the field” (당시 전주스테이션의 선교인원은 1899년 8월 10일에 태어난 레이놀즈 부부의 캐티 레이놀즈를 포함한 8명이다.)



〈그림 3〉 완산도형의 백운정마을과 미국인 점유택(좌),
1872년 지방지도(중), 19세기 완산부지도(우)

「전주지도(1872)」와 「완산부지도십곡병풍(19세기)」에서 표현된 동일한 산자락을 찾아서 <그림 3>의 원(○) 안에 표시하였다.¹⁸⁾ 완산 주봉으로부터 뻗어 내려온 모습이며, 두 지도에 표기된 ‘군자정(君子亭)’이 완산도형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¹⁹⁾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갖기 위해 근대식 축척이 정확한 「전주지도(1918)」를 활용하였고, 지도에서 확인된 위치를 <그림 4>에 원(○)으로 표시하였다.²⁰⁾ 다행히 산세는 물론 지형의 모양이 완산도형과 명확하게 일치한다. 큰 원(○)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 작은 원(○)은 ‘군자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완산도형에 그려진 전주스테이션은 군자정이 자리한 언덕의 남쪽 너머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시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 위성지도에도 비교하여 표기하였다.

18) 완산도형에 표현된 지리적 위치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고지도에 표기하였다. 규장각 소장의 1872년경 전주지도(126 x 75cm)와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19세기 완산부지도십곡병풍(紙本淡彩, 537 x 190cm)에서 일부를 게시하였으며, 완산도형의 방위가 南(上)·北(下)·東(左)·西(右)로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활용한 지도들의 방위도 남쪽을 위로 회전하여 첨부하였다.

19)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2008, 『국역 全州府史(1943)』 762쪽에 기록된 군자정 설명을 보면 “부의 서쪽 용두치 동쪽 기슭의 평지에 정 하나를 창축하여 군자정이라 명명하고 동쪽에 과녁을 세워두고 쏘았다. 전해지는 성 밖 사정 중 최초의 것인 듯하다. 정조 무신년 9월에 남서쪽의 높은 곳, 즉 현존하는 위치로 이건하고 과녁을 그 남서쪽에 두었다.”고 기재되었다. 당시 민가로 잔존하던 군자정은 현재 ‘기령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20) 전주문화원(2023), 『古地圖에 나타난 全州地名』, 신아출판사. 330쪽. 1:10,000축척, 1917년 측량 1918년 제판3도 인쇄본, 1919년 육지측량부 인쇄발행, 상업판매용 정가 13전, 조선총독부 저작소유권, 38x42cm, 대한역사연구소 소장.

한편 완산도형에 그려진 대나무숲에 둘러싸인 남쪽 마을은 ‘백운정마을’로 보이는데, 1918년 제작 전주지도에 ‘백남신 별저(白南信 別邸)’가 기재되어 판단의 명확성이 부가되었다. 백운정마을(효우동)은 <그림 3>과 <그림 4>의 해당 위치에 사각(□)으로 표시하였다. 현재는 ‘거성연립’이 세워진 부지로 확인된다.²¹⁾



〈그림 4〉 1918년 전주지도 일부(좌),
현재 위치를 표시한 위성지도(<https://map.naver.com>)

‘미국인점옥처’ 위치로 확인된 산언덕에는 현재 1982년 건립된 ‘명륜연립’ 3개동과 일반주택 다수가 건축되었고, 산을 깎아낸 전면에는 1990년에 건설된 ‘태화청학아파트’가 서있다. 산으로 오르는 언덕 기슭에는 ‘청학경로당’이 있다가, 지금은 완산초등학교(곤지중학교) 운동장 너머로 이설되었다. 이 마을에 유독 ‘청학(靑鶴)’이라는 이름이 많다.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이곳에는 ‘청학루(靑鶴樓)’가 있었다. 『전주부사』에 적힌 청학루 소개글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위치: 완산정 121번지 1.

청학루는 완산자락이 멀리 북방으로 뻗어 전주천의 좌안 쪽으로 돌출된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있는데 시내 전경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형승지(形勝地)를 점하고 있다. 누정은 1921년 7월에 박기순(朴基順)이 구 감영 비장청 청사의 일부를 양수하여 이곳으로 이건하고 수축을 가한 것이다. 건축 당시에 심은 100여 그루의 벗나무는 수령

21) 앞의 책. 『국역 全州府史(1943)』는 백운정(白雲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주부 남쪽으로 1리, 완산 아래 효우동(孝友洞)에 있다. 고(故) 현감 백치연(白致彦)이 별장으로 만들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폐기되었다, 증손 남신(南新)이 중건하였다.”

이 벌써 20여 년, 지금은 부내에서도 손꼽히는 꽃의 명소가 되었으며 각종 단체가 수시로 이곳을 빌려서 모임을 갖고 있다.²²⁾

청학(靑鶴)이라는 지명은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 1841~1910)의 『연석산방문고(燕石山房文藁)』에 실린 「청학산기(靑鶴山記)」에서도 보인다.²³⁾ 동학군의 전주성 입성 당시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저술을 잃고 실의에 빠져, 일정 기간 은송리에 누워 지낸 때를 회상하며 쓴 글이다.

나는 병을 핑계 삼아 전주의 은송리에서 지냈다. 내가 거처하는 집에서 비스듬한 경사길 오른쪽에 이른바 청학산이 있는데, 거리가 삼사십 보밖에 되지 않았다. 인가에 가까이 있지만 이곳에 머무른 지 몇 개월이 지났어도 한 번도 그 산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 산을 보면 높이는 겨우 집 위로 약간 솟아나올 정도며, 길이는 또한 두세 집에 의지하고 있었다. 발걸음을 움직여 비록 올라가서 임할지라도 어찌 흥취가 발현될 수 있으며 마음속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중략) 산의 앞쪽은 우묵하고 뒤쪽은 가파르며, 왼쪽은 활처럼 굽어 있고 오른쪽은 아득히 멀어서 입이 있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마음에 맞는 것을 만나면 문득 자득함을 기뻐하여 입이 벌어지는 것도 깨달을 수 없었다. 곁에서는 내가 까닭 없이 웃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글의 말미에는 “청학이라고 이름 지은 까닭에 대해서는 학산(鶴山)이 기록한 것을 다음에 덧붙인다.” 기록하고, 정인기(鄭寅驥, 1868~1906)의 「청학산기」를 부록으로 남겼다.²⁴⁾ 주요 대목은 다음과 같다.

22) 앞의 책. 『국역 全州府史(1943)』 765쪽의 글을 인용함. 여기 등장하는 박기순은 아들 박영철과 함께 대표적인 친일 인사로, 덕진연못에 취향정(醉香亭), 완산언덕에 청학루(靑鶴樓)를 짓고 음풍농월하였다. 두 곳 모두 황실재산부지라는 점이며, 이를 점용할 수 있었던 것은 친일행적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이 두 정자는 1931년 전주읍사무소에 시민들의 유희장으로 기부하였다는 기사가 확인된다. “박기순씨(朴基順氏)후의(厚意) 유희장을 기부” 제하, 수천 원의 예산으로 관리비용 명목의 논을 추가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1931년 4월 19일 3면.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3) 김계문화원, 2001, 향토문화자료 제20호 『石亭 李定稷 遺藁 (I)』, 도서출판 학예사, 316~322쪽.

24) 구사회, 2024, 「근대계몽기 석정 이정직과 학산 정인기의 교유 관계와 교유시에 대하여」, 『은지논총』, 은지학회, 제78집, 123-151쪽. 학산은 동래정씨 대호군공파에 속하

전주 고을을 완산이라고도 하는데, 성의 남쪽과 거리가 1리도 되지 않는다. 일곱 개의 봉우리가 산맥처럼 이어져 있고 오동나무 같은 나무들이 담장처럼 둘러쳐져 있다. 첫 번째 봉우리의 한 줄기가 동북쪽으로 내려와 작은 봉우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청학(靑鶴)이라고 한다. 높이는 겨우 20여 미터 남짓밖에 되지 않고, 둥근 것 같지만 둥글지 않고, 모가 난 것 같지만 네모지지도 않는다.²⁵⁾ (중략) 이 산봉우리는 미처 군지(郡志)에 실려 있지 않아서 사람들도 또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나 전해온 지 수백 년이 되었는데 사라지지도 않았으니 이상한 일이다. (중략) 봉우리의 남쪽에 옛날에는 정자가 있어서 그 이름을 ‘백운(白雲)’이라 했었다. 소인묵객(騷人墨客)이 모두 그곳에 모여들었고, 왕래하면서 경치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두 개의 『청학산기』에 묘사된 지형·지세는 완산도형에 그린 전주스테이션 부지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고, 완산십곡명풍도에 표현된 산의 모습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인기는 동학으로 인해 수목이 무성했던 산봉우리가 지금은 황량해졌음을 아쉬워하며, “학은 천년을 살아서, 이 산의 이름을 청학이라고 부른다. 대개 사물 중에서 작으면서 장수하는 것은 학과 같은 것이 없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군지에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라지지 않는 이름 ‘청학’은 박기순이 조성한 ‘청학루’로 인해 주변에 더욱 이름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완산도형에 표시된 ‘미국인점옥처’가 자리 잡은 야트막한 완산 언덕은 바로 후일 풍류의 회합 명소로 장소성을 이어간 ‘청학산(靑鶴山)’이다. 각종 회합과 시회(詩會) 등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은 당시 신문에 기록으로 남았다. 이러한 장소성은 ‘청학루(靑鶴樓)’와 군자정 사이에 ‘백학루(白鶴樓)’가 조성되며 확장되었다. 백학루가 세워진 곳은 전주스테이션 목책이 세워졌던 우물 옆 서쪽 경계 산자락으로 확인된다.

는 풍천공파 부남중종의 후손이었다. 그는 1868년(고종5)에 전주에서 태어났고, 1906년(광무10)에 병으로 죽었다. 석정과 학산이 교유하면서 지은 한시 40여 수와 산문 3편이 『연석산방문고』에 남아 있다. 석정은 정인기에게 ‘우칭(于稱)’이라는 별호를 지어 주었다.

25) 원문에서는 10여 길(壽)로 적혀 있으나, 번역문에서는 ‘10여 자’로 되어 있어, 오류를 바로 잡았다. 또한 논문작성기준에서 미터법 기재를 원칙으로 하는 바, 1길은 대략 1.8~1.9미터 정도인 점을 적용하여 20여 미터로 정리하였다.

1933년(昭和 3年 癸丑) 5월, 청암(淸巖) 이학선(李鶴善, 생존연대 불명)이 쓴 「청학루기(靑鶴樓記)」는 이렇게 적었다.²⁶⁾

전주성(豐城)의 만상(萬像)이 이 누각에 모여 있고
삼산(三山)과 십주(十洲)의 빼어난 경치가 아닌가
청학(靑鶴) 선인(仙人)들은 사람이 다 알지 못하니
백운(白雲) 천재(千載, 천년)에 우리가 노는구나

청학루 한옥건물은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1965)와 재단법인 전북국악예술 학원(1970년)이 사용하다가, 비사벌예술학교(1972)를 세우며 사라졌다. 이후 장소의 협소함을 이유로 전주예림고등학교(1979. 2. 24)로 교명을 변경하고 효자동 3가 1231부근(204,555㎡)으로 이전하였으니, 전통예술교육장으로 이어졌던 청학산 언덕의 장소성도 마감하게 되었다.²⁷⁾

3. 초기 개신교 전주 정착

1) 전주스테이션 정착 연혁

언더우드는 1891년 10월 23일 호레이스 언더우드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미국 해외선교 신학생 연맹(Inter-Seminary Alliance for foreign Missions)에서 한국선교를 독려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에 감동을 받은 당시 신학교 졸업반이던 전킨(Junkin)과 레이놀즈(Reynolds)는 1891년 12월 “왜 우리는 한국에 가고자 하는가 (Why we wish to go to Korea)”라는 글을 써 보내며 한국선교를 희망하였고 미국남장로교 해외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한국선교(Korea Mission)가 결정되었다.²⁸⁾

26) 전주문화원이 주최한 제3회 전주역사유물찾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작품으로, 당대 완산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27) 효자동으로 이전하기 전 청학산의 내력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전주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후는 전주성은여고(1982), 호남제일여고(1997), 2003년부터 호남제일고로 현재에 이른다. 단, 1998년 호남제일여고 당시 신축한 교사(연면적 1,847.45㎡)에 ‘청학동’이라고 명명하였으니, 청학산 정기는 이어진 듯하다.

28) George T. Brown, 1963, *A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 FROM 1892 TO 1962*,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Th.D,

1892년 여름이 끝나기 전 테이트 목사 남매, 전킨 목사와 부인, 레이놀즈 목사와 부인, 그리고 미혼의 여성선교사 데이비스로 구성된 일명 ‘7인의 선발대(A band of seven pioneers)’가 한국으로 출발했다. 당시 한국선교회 예산은 해외선교부 운영자금 중 1/400에 해당할 뿐이었다.²⁹⁾

이때 미국에 파견된 한국공사관의 서기관 이채연의 부인 ‘성주 배씨(星州裴氏)’가 함께 들어온다. 그녀를 동반하여 다른 선교사들보다 하루 먼저인 10월 17일에 제물포에 도착한 최초의 입국자는 리니 데이비스(Miss Linnie Davis)로서, 이때의 친분은 이채연이 한성판윤(현, 서울시장)이 된 이후로도 이어졌다.³⁰⁾

처음 서울에 도착한 이들은 정동에 있는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서울스테이션 구내에 잠시 머물다가 거기서 2.5km 떨어진 옛 독일공사의 박동 저택을 1,500달러에 구입하여 거주하였다.³¹⁾ 한국관습의 이해, 북장로교 선교활동 파악, 언어공부 등의 기간이 필요했던 선교사들에게 초기 2년 동안의 거점이 되었던 이 집은 고향의 정서를 닮았다는 의미에서 ‘딕시(Dixie)’라고 불렸다.³²⁾

Religion, general, pp.62.

29) 송상훈 옮김, 2022, 『기전여학교 교장 랭킨 선교사 편지』, 보고서, 5쪽.

30) 이채연(1861-1900)은 1886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알렌의 제증원 주사로 근무했던 인연으로, 1887년 미국 주재 초대공사 박정양과 함께 번역관으로 임명돼 파견되었다. 일시 귀국했다가 1888년 1월 참찬관 이완용 등과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때, 부부 동반으로 귀입하였다. 이완용의 부인 ‘양주 조씨(楊州 趙氏)’와 이채연의 부인 ‘성주 배씨(星州裴氏)’는 미국 땅을 밟은 최초의 여성들로서, 미국 언론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선교사들과 입국한 배씨는 2개월 된 아들(이화손, 1890. 10. 12-12. 17)이 숨진 슬픔으로 건강을 잃고 고국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31) 송현강, 2010, 레이놀즈의 목회사역, 『한국기독교와 역사』3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35-56쪽. 재인용; Mrs. Anabel Major Nisbet., 1920, *Day In and Day Out in Korea*, Richmond, VA.: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pp.19-20.

32) 필렌도르프에게 고종이 제공했던 민겸호의 옛집으로, 후일 독일공사관이 사용하다가 이전하였는데, 명신여학교(숙명여고의 전신)가 마련되기 전까지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딕시’로 사용되었다. 딕시(Dixie)란 미국 남부지방의 통칭으로서, 새로운 보금자리에 자신들의 고향을 의미하는 애칭을 붙여 부른 것이다.

〈표 3〉 전주스테이션 개척을 위한 정착 연혁 33)

시기	내 용
1892년 11월	7인의 개척(선발대) 선교사들 한국 도착
1892년 12월	한겨울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북장로교 선교사 모팻과 함께 레이놀즈는 충청도의 두 도시인 청주와 공주로 현황 파악을 위해 여행
1893년 2월 28일	1월에 열린 통합선교위원회에서 선교지역 분할협정 즉 예양협정(禮讓協定, Comunity Agreement)에 따라 미국남장로교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미션 구역으로 개척 활동이 시작됨
1893년 봄	계획했던 현지 정보 시찰여행을 폭동과 반란에 대한 소문으로 저지됨
1893년 6-7월	북장로교 ‘서 서방(서상윤)’ 다음으로 신뢰하는 ‘정 서방(정해원)’을 6월에 전주로 보내 정착지를 알아봄. 전도지를 팔며 전주에 도착한 정해원은 완산 기슭에서 마땅한 집을 찾아냄.
1893년 8월	좋은 언덕 기슭에 깔끔하고 안락한 집을 확보하였고, 이후 그 언덕은 전주 스테이션의 부지로 상당 부분을 매입하게 됨
1893년 9월	테이트와 전킨이 전주로 여행하여 방문하였으나, 현지인들의 반응을 우려해 주막에서 머무름 (정서방이 가족과 함께 9월부터 내려와 생활하였으나, 그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겼기 때문) 그러나 그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나중에 외국인들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 알았으나 큰 반감을 나타내지 않음.
1893년 11월	테이트가 한국어 선생을 동반한 2번째 방문, ‘정’에게 맡겨 둔 ‘우리집’에서 1주간 지냄 정해원은 구입한 집에서 부인과 함께 생활하며 전도 활동. 사람들은 집으로 몰려들어 마당을 채우고, 울타리를 들여다볼 정도로 대부분이 너무 친절하여 전망은 분명 밝았음
1894년 3월-4월	테이트는 여동생 미스 테이트와 전주로 3번째 방문, 3개월을 지냄. 봄 동안 생활을 시도하고 잘 진행된다면 가을에 정착하러 내려올 계획이었음. 테이트 남매가 머무는 동안, 레이놀즈와 드류 ³⁴⁾ 가 전라도 남서부 확장을 위한 여행에 나섰는데 일정 중 3월 31일-4월 5일까지 이곳에 방문하여 스테이션 발전방향에 대한 미션회의를 통해 선교부지 구입 및 권역 활용 등을 결정함 수백 장의 전도지를 사들여, 남자들에게는 사랑에서, 여자들에게는 안방에서 매일 하루 종일 설교함. 지난 겨울 정해원과 함께 ‘예수교리’를 공부해 온 남자들이 대역섯 명 정도 있었는데 테이트가 머무는 동안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모두 세례를 신청하였고 그중 3명에게 세례를 줄 생각이었음 전주에서 생활하던 정해원 가족과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 이후, 정씨 부인이 도시에 대한 향수병으로 정씨 가족은 전주를 포기하고 서울로 되돌아가
1894년 4월-5월	확보된 선교부지 건너편 언덕 샘물이 솟는 ‘편자모양’의 땅을 100달러 이내로 구입 완료. 동학 봉기 직전 서울로 귀환. 테이트가 서울로 돌아온 지 겨우 일주일 정도 지나 혁명군 전주 함락 (연구자 참고 기재: 동학군 전주입성일은 양력 5. 31)

33) 선교사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통합 정리하여 시간 순으로 정리함. 시점 및 인칭은 원 자료를 따름.

시기	내 용
1895년 봄	<p>동학의 결과로 파괴된 전주에 돌아옴. 우리의 작은 집에 현자인 한의사가 사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방에서는 서당이 꾸러지는 등 영망이 되었음을 보게 됨. 동학 후의 변화로 사람들은 외국인과 외국인의 교리에 모든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임. (돈을 요구하기도 함)</p> <p>집을 수선하고, 테이트는 전주에서 더운 여름 전까지 머물다 서울로 돌아감.</p> <p>선교전망에 대한 레이놀즈의 평가: 종교적 목적보다 사업에 더 열심인 정서방이 전주교회의 기초를 닦았고, 모인 사람들이 외국인의 취업전망이나 어떤 식으로든 돈과 도움을 얻고자 하는 희망에 이끌렸을 것. “rice-Christians”에게 교회 옆문을 개방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p>
1895년 가을	<p>전주 정착을 위해 테이트는 동생과 거주할 한국집 2채를 새로 구입하고 수선 및 개조 완료</p>
1895년 겨울	<p>그후 테이트는 크리스마스 주간 후반에 여동생을 동반하고 전주로 떠나 1896년 1월 첫 주에 도착하여 정착함(미스 테이트의 일을 돕는 한국인 Mrs. Ye도 함께 내려옴)</p>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전주에 정착했던 일련의 과정은 레이놀즈, 테이트, 전킨 등 선교사들의 기록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³⁵⁾ 이를 <표 3>에 순차적으로 정리하였다.

1893년 2월 28일 선교지역분할협정에 따라 미국남장로교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미션지역으로 확정하게 된다. 그해 6-7월 한국인 조사 정해원을 통해 전주성 남문 밖 완산 기슭에 집을 찾게 되었고, 8월에 초가집과 함께 선교를 위한 언덕 위 상당 부지를 확보하였다.

1894년 3월 테이트 남매가 가장 먼저 전주생활을 시도하였고, 레이놀즈와 드류 선교사는 선교환경 및 정보탐색을 위한 전라도 여행을 진행하던 중 일주일(3월 31일-4월 5일) 정도 함께 머물기도 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어렵게 되자, 5월에 서울로 철수하였다. 이후 1895년 여건이 회복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1896년 1월에 이르러서야 전주스태이션의 본격적인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다.

34) 드류는 1893년 홀로 서울에 도착하여 선교부에 합류하였고, 나중 군산에서 의료선교사로 활동하게 됨.

35) *The Missionary*, September. 1893, W. M. Junkin, “PREPARING FOR WORK IN KOREA”

Personal Report of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in Korea, 1892-1986, Vol. 18, L. B. Tate, pp.235-236,

Christian Observer, Oct. 9, 1895, W. D. Reynolds, “Before and After the War”

2) 전주스테이션 정착 공간

1897년 11월 3일 전주에 도착한 잉골드 의료선교사는 전주의 첫인상과 스테이션 위치를 이렇게 적었다.

우리 선교부 건물은 전주성 밖의 남쪽 언덕 위에 지었는데 성안의 한국인들과 꽤 거리는 있지만 성 밖 한국인들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우리가 바라는 전망이 좋은 곳에 두 채의 건물을 지을 계획인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장소는 두 가지 조건-건장에 좋고 경치도 아름다운-을 모두 갖추고 있다.³⁶⁾

‘전망 좋은 언덕’은 완산을 표현한 것으로, 앞서 확인된 ‘청학산’의 지리적 위치와 부합한다. 그렇다면 완산 언덕은 언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레이놀즈의 기록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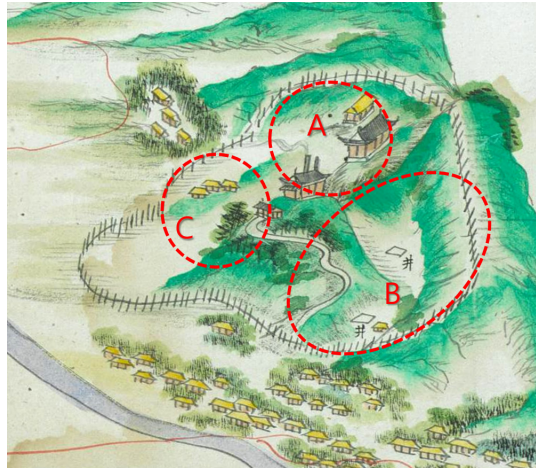
우리는 두 개의 작은 집에 대한 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는 언덕 기슭에 있고, 다른 하나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언덕 주변에 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언덕을 더 많이 확보하고, 얼마 후에 병원과 다른 선교 건물을 건립하기를 희망한다. 언덕 중턱에는 깊은 샘이 솟고, 편자 모양(horseshoe-shape)의 땅에는 각 지점마다 나무가 모인 두 개의 수풀이 있다. 전체적으로 최고의 위치를 찾았다.³⁷⁾

<그림 5>에서 ‘도시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언덕’은 A권역을 의미하며, ‘깊은 샘이 솟는 편자모양의 땅’은 B권역을 말한다.³⁸⁾ 1894년 3월 31일, 레이놀즈와 드류 선교사가 전라도 여행 중 전주에 머물고 있던 테이트 남매의 완산에 도착했다. 이때 작성한 레이놀즈의 메모를 기반으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36) 고근 옮김, 2018, 앞의 책, 56쪽 (앞의 Personal Report, Vol. 18, Mattie B. Ingold., pp.123-124.)

37) *The Missionary*, October. 1894, W. D. Reynolds, (SEOUL, KOREA, June 30, 1894). “PROSPECTING FOR SATATION IN CHULLA-DO/CHUNJU”

38) 전술한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의 『청학산기』에서는 이곳을 “활처럼 굽어 있는 땅”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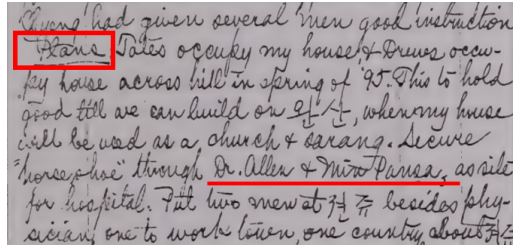
〈그림 5〉 전주스테이션 부지 매입 과정

<그림 6>은 “계획(Plans)”이라는 제목 아래 앞으로 실행할 사항을 적은 것이며, 이는 4월 1일 4인이 모여 진행한 선교부회의(Mission Meeting)의 안건이기도 하다. <그림 5>의 A권역은 1893년 8월 레이놀즈가 구입한 집(정해원이 찾은 집)과 그 위의 언덕부지를 표시한 것이다.³⁹⁾ B권역은 의료선교구역으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부지로서, 100달러 넘지 않는 선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테이트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알렌과 민판사”를 통한 계획이라고 적었다.⁴⁰⁾ 결과적으로 4월 4일 25달러의 선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진행했고, 동학으로 철수하기 전까지 부지가 확보되었다.⁴¹⁾ C권역은 1895년 11월 테이트 남매가 거주를 위해 마련한 공간이며, 추가로 1897년 6월에 내려온 레이놀즈 가족이 마련한 작은 주택이 포함된 곳이다. 총 4차례에 걸쳐 완산 부지의 전체가 확보된 것이다.

39) 처음 마련한 완산의 집은 레이놀즈 개인돈으로 마련했다. 그래서 상기 친필 메모에서도 지속적으로 ‘my hous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교부에서 자금이 마련되는 1년 동안 매월 5달러에 빌려줄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40)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알렌과 민영익은 갑신정변 당시 입은 자상 치료를 통해 친밀해졌으며, 그 인연을 계기로 선교사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기록 시점 민영익은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의 직위에 있었다.

41)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from The Executive Committee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Southern Presbyterian Church), 1898, Nashville, Tennessee, United States Of America., “CHUNJU, HISTORICAL NOTE”*



〈그림 6〉 Rev. W. D. Reynolds의 친필 기록⁴²⁾

4. 완산도형으로 보는 전주스테이션

1) 최초 교회와 선교사 주택

미국장로교 통합선교본부의 해외선교 실행위원회에서는 선교사들이 파견된 국가별 각 스테이션의 활동상황을 보고받아 매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한다.⁴³⁾ 4월 이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된 1900년 연간보고서에서 전주스테이션의 자산현황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의 자산은 한 해 동안 건립된 두 곳의 넉넉한 주거지, 한국집을 구입하여 재건한 예배당과 진료소, 교회로 사용하는 초가집으로 구성되었으며, 테이트 남매, 해리슨, 레이놀즈 가족, 잉골드 등 선교사들이 살았던 작은 토착 건물 다섯 채가 균집을 이룬다. 높은 언덕 위에 지어진 두 채의 새 주택은 일 건강 또는 경관을 고려하더라도 훌륭한 위치에 있다.⁴⁴⁾

전주스테이션의 자산은 교회를 포함한 ‘다섯 채의 초가집’과 언덕 위에 새로 지은 ‘기와집 2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완산도형에서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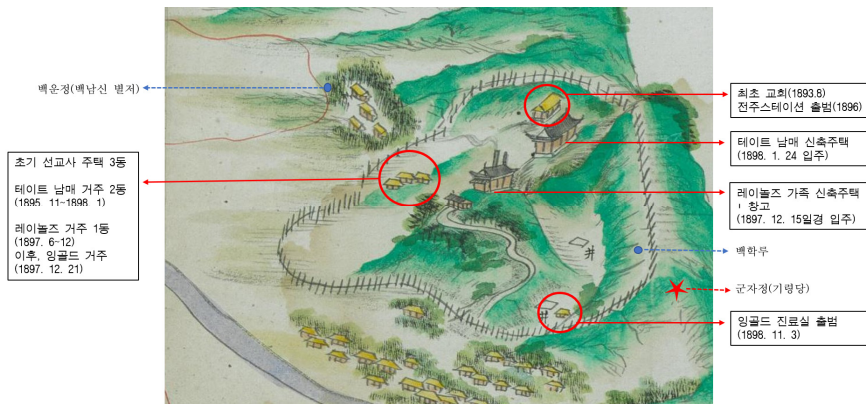
42) W. D. Reynolds, 1894, Chulla-Do Trip. <us.archive.org/missionariesreyn4520unse.pdf>

43) 전년 4월 1일 이후부터 당해 4월 1일 전까지의 상황을 보고하고, 대개 이를 통합편집하여 매년 9월에 발간되었다.

44)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from The Executive Committee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1900*, Nashville, Tennesse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Year April 1, 1899 To April 1, 1900) “CHUNJU STATION”

진 기와집은 3채다. 이 중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와집 1채는 레이놀즈 가족의 부속건물인 창고일 가능성이 크다.⁴⁵⁾ 따라서 완산도형에 구현된 전주스테이션은 실제 선교사들이 거주하던 당시의 공간현황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전주스테이션의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연혁을 중심으로 <그림 7>에 정리하였다. 이의 표기 사항은 이어지는 각 공간별 연혁에서 분석의 근거를 살피기로 한다.



<그림 7> 전주스테이션 정착 공간의 배치 현황

(1) 최초 교회

1898년 2월 1일 잉골드의 기록에서는 전주스테이션이 조성된 연혁을 순차적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해원이 완산 언덕에 마련한 최초의 주택이 교회가 되었음을 확인해준다.

레이놀즈 선교사는 오래전 서울에서 전주로 한 현지인 기독교인을 보내 집을 구입한 후 그 집에 머물렀는데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집은 지금 우리의 예배장소로 쓰이고 있고, 우리는 이곳을 교회라 부르고 있다. (중략) 교회 내부는 남자와 여자 공간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데 큰 천이 설교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 가까이 있는 문을 가로질러 내려져 있다.⁴⁶⁾

45) W. B. Harrison, *Journal*, June 1 & 25, 1897. “6월 1일 레이놀즈 집 아래 창고 작업 시작, 25일 선반을 설치했다.”

46) 고근 율김, 2018, 앞의 책, 67~69쪽 (앞의 *Personal Report*, Vol. 18, Mattie B. Ingold.,

1893년 8월 완산에 마련했던 언덕 위의 초가집은 1897년 3월 해리슨이 전주에 정착하면서 잠시 그의 거주처가 되었으나, 직접 ‘사랑’을 개조하여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집’으로 제공하였다.⁴⁷⁾ 결과적으로 1897년 7월 18일 세례자가 배출되고, 교회조직이 출범한 9월 이후, 공식적인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⁴⁸⁾

1899년 1월 2일 잉골드의 기록을 보면 작은 교회가 다시 확장하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6피트의 칸막이로 남녀의 공간을 나누어, 인도자가 서는 자리는 열려 있어서 양쪽을 동시에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출입구까지 천으로 가려서 설교자를 볼 수 없었던 구조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다. 모든 비용은 주일 헌금으로 충당했고 어떤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작업에 참여하였다.⁴⁹⁾ 이후로도 1901년 봄 증축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두 칸을 더하여 전체적으로 여덟 칸이 되었다.⁵⁰⁾

처음 완산에 초가집을 구입한 직후 1893년 9월 선교사들이 방문했을 당시, 전주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전킨은 이렇게 적었다.⁵¹⁾

우리 집은 성벽 바깥, 개울 건너편, 외곽 마을의 가장자리에 있다. 이곳은 3-4채의 집을 사이에 두고 언덕의 꼭대기(brow, 벼랑 위)에 가까운데, 이 집들은 각각 25달러에 해당하는 한국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중략)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집을 샀다는 것과 우리가 그곳에 사는 목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네 남자들은 회의를 갖고 전면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나, 아무런 소란도 일으키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지역사회 대표 7-8명이 우리를 방문했고, 한 노신사가 자기 집에서 우리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⁵²⁾

pp.129-130).

47) W. B. Harrison, *Journal*, March. 10-14, 1897. “3월 10일 수리 시작, 14일 완료 후 10명의 한국인과 첫 예배 드림”

48) W. B. Harrison, *Journal*, July. 8, 1897. “오늘은 첫 세례자가 배출되어, 전주스테이션의 시작일이다.”

한편,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본부에서 발행하는 자료에서는 전주스테이션 출발을 1896년으로 공개하고 있다.

49) 고근 옮김, 2018, 앞의 책, 118쪽 (앞의 *Personal Report*, Vol. 18, Mattie B. Ingold., pp.151).

50) *The Missionary*, 1902, W. B. Harrison, “General Report of Chunju Station”(Nov.10,1900 to Sep.1, 1901).

51) *The Missionary*, July. 1894, Rev. W. M. Junkin, “A VISIT TO OUR NEW STATION” (Seoul, Dec. 13, 1893)

이를 통해 최초 교회가 자리한 위치정보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림 5>에서 표기된 A권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완산도형 상 언덕 위로 오르는 길의 진입 부근에 서너 채의 집이 존재하는 상황도 연결된다. 1898년 연간보고서의 ‘HISTORIC NOTE’에서는 처음 구입한 집에 30달러를 지불하였음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언덕으로 오르기 전 보이는 주변의 작은 집들은 ‘각각 25달러 정도면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이며, 당시 초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시세 정도를 적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⁵³⁾

한편 ‘황제의 땅’이라는 이유로 완산을 떠나게 된 시점에서 선교사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해리슨 부인(리니 데이비스)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⁵⁴⁾

왕이 완산 땅을 되돌려 받기를 원했는데, 그렇다면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땅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는 미스터리다. 이에 대해 전주의 관계자들은 ‘왕이 보낸 사람(Great Man)에게 어떻게 팔지 않을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것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인(Great Man)은 1894년 땅을 구입할 당시 상황의 테이트를 일컫는 말로서, 전주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양대인’이라 부르며 존중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94년 4월 의료선교를 위해 ‘편자모양의 땅’을 구입하고자 했을 때, 레이놀즈의 기록대로 ‘알렌 박사와 민판사’ 등 친미파 관료를 통한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다. 선교사들은 민영익, 이채연, 윤치호, 서재필(P. Jaisohn) 등 친미인사와 인연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림 8>의 No.3은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 중에서 최초 전주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진이다. 해리슨의 『The Missionary』기고문에 포함된 사진으로서, “미스 테이트, 의사 잉골드, 한국 여성들과 아이들, 전주스테이션(KOREAN WOMEN AND CHILDREN, CHUNJU STATION)”이라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⁵⁵⁾ 이와 동일한 사진이 포사이드 의료선교사의 『CHRIS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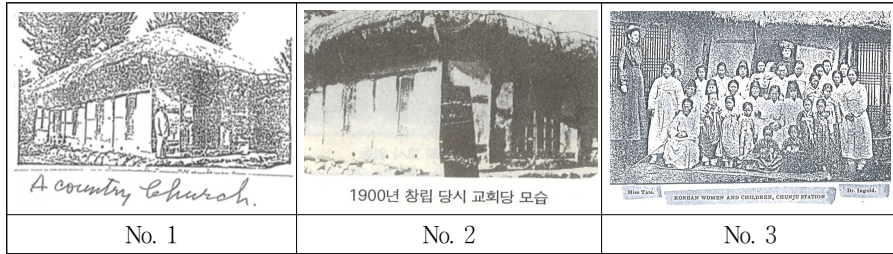
52) 당시 정해원이 이사온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선교사들은 주막에 머물며, 2주간 지냈다.

53) 시작은 알 수 없으나, 누군가 첫 주택을 25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적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재인용되고 있다.

54) *The Missionary*, October. 1901, IMrs. Harrison, IN AND AROUND CHUNJU “Lost of the Won San Prererty”

55) *The Missionary*, October.1904, W. D. Harrison, “Chunju Note”

OBSERVER」기고문에도 게재되었는데, 여기서는 “미스 테이트와 잉골드 그리고 전주 여성신자들, 교회문이 보인다(Miss Tate, Ingold and Chistian women at Chunju, Korea. showing church door)”라는 설명이 부가되었다.⁵⁶⁾ 위 두 자료를 기준으로, 이 사진은 서문 밖 교회로 이전하기 직전까지의 교회 모습이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림 8〉 최초 전주교회로 알려진 사진⁵⁷⁾, 정읍 매계교회 100년사 수록, *The Missionary*에 게재된 전주스테이션

〈그림 8〉의 No.1에 보이는 사진은 그동안 완산 최초의 교회, 즉 전주서문교회 첫 사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No.3에서 확인된 전주교회 사진과 문을 포함한 건물구조가 확연히 다르다.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아 본고의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전주교회는 마루 밑이 열린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선교사들의 원문기록 자료에서 발견된 사진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A Country Church’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 표현은 아웃스테이션 즉 시골교회를 나타내는 말이다. 전주 교회라면 ‘Chunju(or Local) Church’ 또는 ‘Chunju Station’이라고 적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서 있지 않은 동일한 모습(No.2)의 교회사진을 『매계교회 100년사(1900-2000)』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정읍(태인) 매계교회는 1900년 지역 부호인 황운섭 장로의 사랑채에서 시작

56) *CHRISTIAN OBSERVER*, MAY. 10, 1905, Foreign Missions. Korea and the Progress of the Gospel, By FORSYTHE, W. H. “Our Part of the Work”

57) *Personal Report of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in Korea, 1892-1986*, Vol. 18, L. B. Tate, pp.235-236. “Opening of the Mission”의 뒷페이지에 편집되어 수록된 사진이다. 그러나 당초 이 원고는 *Korea Mission Field*, Vol.17, no.11, Nov., 1921.에 게재된 기고문인데, 전주스테이션의 연혁을 정리한 내용이며, 여기에는 사진이 없었다. G. T. Brown은 앞의 박사학위 논문(1963) p.118에서 이 글은 ‘전주교회 25주년을 위해 준비한 기념사’라고 정리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진이 최초의 서문교회로 왜곡되어 전달된 계기는 퍼스널리포트의 오독(誤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속 인물은 테이트가 확실하며, 교회건물은 매계교회라는 자료의 신빙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한 자생적 교회였다.⁵⁸⁾ 테이트 선교사가 담당한 선교구역이었고, 한국인 최중진 목사에 의해 성장하였다. 1909년 최중진 목사가 ‘자주교회’를 선언하고 형평운동을 펼치며 독립하였다가, 1914년 폐쇄되었다. 10여 년 동안 멈춰있던 매계교회는 박봉래 집사와 박창욱 목사가 재건하여, 1925년 부활절 예배를 시작으로 재개되었다. 이는 은퇴를 앞둔 테이트 목사에게 반가운 일이었을 것이다. 매계교회의 재건기념 행사에서 테이트가 직접 사회를 보았다.⁵⁹⁾

따라서 No.1의 교회 앞에 서 있는 노년의 테이트 사진은 부활절 예배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방문은 거의 공식적인 마지막 행사였다. 테이트 부부⁶⁰⁾는 4월 11일 팻정이교회(현, 김제금산교회), 5월 26일 유상리교회(현, 전주유상교회), 며칠 후 서문교회에서 송별회를 가진 후, 6월 17일 한국을 떠났다.⁶¹⁾

(2) 선교사 주택

1896년 1월 테이트 선교사 남매가 가장 먼저 완산에 정착하는데, 동학이 끝나고 전주가 도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던 때였다. 1895년 9월부터 11월 사이 작은 초가집 2채를 구입하여 수선 및 개조하였고, 이듬해 1월 테이트 여선교사가 내려오면서, 본격적인 완산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 두 채의 집은 완산도형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교회로 오르는 언덕 기슭인 <그림 5>의 C권역이다.

테이트 여선교사의 집은 흙바닥이 깔린 어둡고 음침한 부엌, 8x12ft (2.4x3.6m) 크기의 온돌(기름종이 바닥 아래를 통과하는 굴뚝으로 가열되는 방) 한 칸, 여기에 양쪽으로 마루(porch)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였다. 이를 ‘스미스 캐시 스토어 상자(smith cash store boxes)’로 둘러싸서 침실을 만들었다. 테이트 선교사의 집은 두 개의 ‘온돌’로 구성되어 있

58) *The Missionary*, October. 1902, W. B. Harrison (July 6, 1901) From Nov. 10, 1900 To Sep. 1, 1901

1900년 사랑방에서 시작한 매계교회는 이후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3달러를 들여 집 한 채를 새로 사서 확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진 속 교회일 것이다.

59) 김수진, 2002, 『매계교회 100년사(1900-2000)』, 쿰란출판사, 100쪽. ※1925년 부활절은 4월 12일이었다.

60) 1905년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잉골드는 테이트와 9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61) 고근 율김, 2018, 앞의 책, 243쪽 (앞의 *Personal Report*, Vol. 18, Mattie B. Ingold., pp.197).

었는데, 8x12ft(2.4x3.6m)의 방은 서재로, 7x10ft(2.1x3m)의 방은 침실로 사용하였다. 정서방이 처음 구입한 한국집은 새로운 신앙에 대해 문의하러 온 사람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었다.⁶²⁾

테이트 여선교사의 집은 한 사람이 쓰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작은 집이었지만, 잉골드가 도착한 1897년 11월 3일부터 독립할 집이 생긴 12월 21일까지 6주 동안 함께 생활하였다. 이 집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유일한 방문목적은 ‘구경(Kougung)’이었다. 사람들은 매일 몇 번씩 “구경하러 왔소(Kougung haro oasso)”라고 소리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경(Kougung)’이라는 한국말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다.⁶³⁾



<그림 9> Miss Tate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 ⁶⁴⁾

<그림 5>의 C권역에서 보이는 세 채의 초가집 중 한 채는 1897년 6월 15일 내려온 레이놀즈 가족이 임시로 마련하였다. 언덕 위 주택이 완공되어 이주를 마친 후에는 잉골드가 입주하게 된다. 이 작은 초가집의 모습은 <그림 10>의 No.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잉골드는 가까이 살고 있던 두 가족이 이사를 간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두렵지 않다고 적었다.⁶⁵⁾

집의 지붕은 벗짚으로 이었고 벽과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다. 방바닥은 기름을 두껍게 바른 종이로 멋있게 덮여 있지만 약간 조심해야 한다.

62) George T. Brown, 1963, 앞의 논문. pp.117~119.

63) 송영애, 2021, 선교사 기록에 나타난 전주의 풍습: 마티 잉골드의 자료를 중심으로, 『전북연구』 제4집,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161~198쪽.

64) *The Missionary*, October, 1898, M. B. Ingold., M. D, “Phases of Korean Life” (July).

65) 고근 율김, 2018, 앞의 책, 293~296쪽 (앞의 *Personal Report*, Vol. 18, Mattie B. Ingold., pp.127-128).

방바닥은 아래쪽에서 소나무 잡목을 태운 불로 달군다. (중략)

이 집에는 작은 방이 두 개 있다. 각각 8x12ft(약 2.5 x 3.7m)로 서재로 쓰는 방 하나가 아주 맘에 든다. 천장은 따로 없고 지붕은 네 방향이 아닌 다섯 방향으로 불규칙해 마치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인다.

언덕 위의 주택건설 공사는 1897년 5월 7일부터 시작되었다. 목수들이 ‘사랑’에 있고,⁶⁶⁾ 마당에 목재가 쌓여 여성들이 이곳을 출입하기 어려워지자, 예배는 한동안 테이트의 ‘사랑’에서 진행하게 되었다.⁶⁷⁾ 공사가 진행 중인 7월 초까지 가뭄이 깊어지자, 언덕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원인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기도 했다. 7월 5일 도시의 지도자와 주민들이 함께 하는 기우제가 열리더니, 다음날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⁶⁸⁾ 결과적으로 겨울이 되어서야 두 채의 주택이 완공되었는데, 1897년 12월 중순 레이놀즈가 입주할 수 있었고, 1898년 1월 24일 테이트 남매가 새집으로 이사를 완료하였다.⁶⁹⁾ 이 집들은 같은 언덕의 두 갈래로 돌출된 곳에 있으며, 사이에는 작은 계곡이 있었다.⁷⁰⁾

레이놀즈 부인은 6년 만에 정착한 자신들의 집이 생긴 것을 무척 기뻐했다. 이러한 마음은 그녀의 기록에서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이제는 잉골드가 살게 된 옛 초가지붕 언덕 위 새로 건설된 테이트 남매의 집, 그리고 자신들의 새집에 대해 <그림 10>의 사진 4장과 함께 상세하게 기록하였다.⁷¹⁾

우리 집이 지어진 언덕은 집에서 경사가 가팔라서 전체의 사진을 크게 찍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한 번에 절반씩 또는 멀리서 촬영해야 한다. 이 멋진 새집들은 여름에 참 편안하다. 연기와 먼지보다 높은 곳에 있으며, 여전히 수백 명의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과 바로 이웃에 있다.

[사진 1]은 초가지붕, 흙벽, 흙바닥이 있는 전형적인 한국가옥이다.

[사진 2]는 잉골드 의사가 그녀의 현관에 앉아 한국어 선생과 여

66) 각주 47에 정리한 바와 같이, 교회처럼 사용하도록 개조해서 제공한 해리슨의 사랑을 의미한다.

67) W. B. Harrison., *Journal*, May 7 & 29, 1897.

68) W. B. Harrison., *Journal*, July 3 & 5, 1897.

69) 고근 옮김, 2018, 앞의 책, 66쪽 (앞의 *Personal Report*, Vol. 18, Mattie B. Ingold., pp.128).

70) *The Missionary*, October, 1897, Mrs. Reynolds., (July 3, 1897), “Chunju Missio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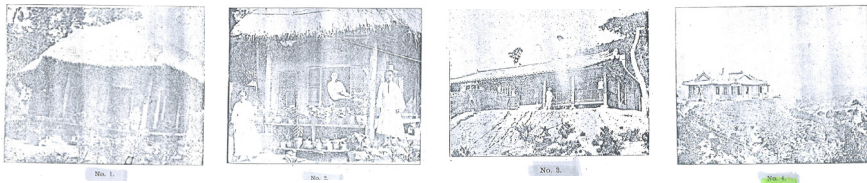
71) *The Missionary*, July. 20, 1898, Mrs. Reynolds., “Chunju Mission House”

자 조사와 함께 있는 사진이다.

[사진 3]은 테이트 선교사 새집의 부분적인 모습으로, 그는 집 앞에, 그의 여동생은 현관에 나와 있다.

[사진 4]는 우리 집 정면이다. 그 오른쪽으로 아래 골짜기에 있는 전주가 아주 흐릿하게 보인다.

새로 지은 두 집은 한국의 기와집과 매우 비슷하게 지어졌지만, 외국식 문과 창문, 바닥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구경을 왔지만, 그 호기심이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림 10〉 Ingold의 첫 독립공간(1-2), 테이트 남매의 신축 주택(3), 레이놀즈 가족의 신축 주택(4)

완산도형에 표현되지 않은 선교사들의 터전은 전주성 안에도 있었다. 해리슨과 군산에서 사역하던 데이비스 여선교사가 1898년 6월 19일 오후 4시 30분 북장로교 서울스테이션 여선교사 도티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⁷²⁾ 여기에는 이채연 한성부윤의 부인도 참석하였다. 이로써 전주스테이션의 선교인원 1명이 추가되었다. 해리슨 부부는 가을 동안 성안에 있는 집을 사서 수리했고, 더 높고 위생적인 지역에 그들을 위한 영구적인 주택이 지어질 때까지 거주한다는 계획이었다. 성안의 사람들은 꽤 친절하고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⁷³⁾

2) 의료선교와 최초 진료소

1897년 11월 3일 전주에 도착한 마티 잉골드는 이곳 최초의 의사였다. 그녀가 도착한 지 1년 만인 1898년 11월 3일 진료소를 열었고, 이듬해 봄 주문한 약이 도착한 이후부터는 매일 찾아오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진료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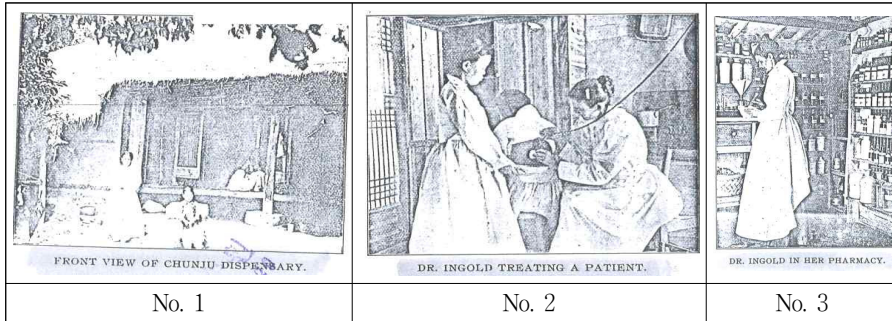
72) *The Missionary*, September, 1898. “Wedding in Korea”

73) *Annual Report, 1899*, 앞의 책. “Individual Report”

하게 되었다. 이 진료실은 선교부 재산인 오래된 한옥을 테이트의 감독아래 개조한 것이었다.⁷⁴⁾ 1894년 4월 1일 열린 선교부회의 결정대로, 의료사업을 위한 ‘편자모양의 땅’ 우물 옆 초가집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료소가 새롭게 개소된 이날이 공식적인 전주예수병원의 출범일이다.

1897년 가을 의료선교사가 전주에 있었다. 그러나 스테이션이 오픈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외국인은 물론 의사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내 한국어 공부는 첫 1년을 지내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한국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족스럽게 일하기에는 매우 부족했다. 그런데도 주변 한국인 친구들은 내가 의사인 것을 알고 가끔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도 있었지만, 이듬해까지 진료소는 열지 못했다.⁷⁵⁾

<그림 11>은 잉골드가 진료실을 소개하는 기고문과 연결된 사진이다. 이 글의 작성 시점에서 진료실을 오픈한 지 5개월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400명의 환자를 진료했는데, 144명이 재방문 환자이고, 25번의 방문진료(왕진)를 실시한 성과를 남겼다. 그녀가 소개하는 진료실 모습은 아래와 같다.⁷⁶⁾



<그림 11> 1898년 11월 3일 완산 기슭에 오픈한 전주스테이션의 공식적인 첫 진료실

74) 앞의 책 *Personal Report*, Vol. 18, Mattie B. Ingold, 6, pp.144-145. 번역서 오역을 원문을 통해 바로 잡음.

75) *The Missionary*, February. 1904, Mattie B. Ingold, M. D., "CHUNJU"

76) *The Missionary*, October. 1899, Mattie. B. Ingold, M. D., "A KOREAN DISPENSARY"

No.1은 진료실 정면이다. 앞에 서 있는 ‘감(Gam)’나무는 가을에 열리는 열매가 사과만큼 크고 맛있어서 이곳의 매력 중 하나다. 서 있는 여성이 환자와 진료소 일을 돕는 Mrs. Ye, 옆의 소녀는 그녀의 딸이다. Mrs. O가 앉아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대기실인데, 한국목수가 만들어준 찬장에 진료기록과 약간의 책, 전도지 등이 있다.

No.2는 진료실 모습이다. Mrs. Ye 뒤로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면 10 x 16ft(약 3x5m)크기의 방에서 진료와 수술을 한다. 외국식으로 유리문을 달아서 나무 문살이 제대로 보인다.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Mrs. O인데, 점쟁이었다가 복음과 구원을 믿게 된 예비신자다. 등에 난 커다란 종기에 매일 드레싱이 필요해서 첫 입원환자가 되었다.

No.3은 진료실의 다른 코너로, 이 작은 공간에 이름을 붙인다면 ‘제약실’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다.

잉골드보다 먼저 진료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해리슨 선교사였다. 그는 정식의사는 아니지만 의료선교와 관련된 일정교육을 받았고, 복장로교 서울 선교사들의 의료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내려왔다. 그러나 위의 잉골드 기록대로 ‘소통이 가능한 정식교육을 받은 의사가 있고, 다양한 약품과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춘 진료실이 마련된 날’을 의료사업의 공식적인 출발일로 보는 것이다.

해리슨은 1896년 2월 20일 개별입국으로 서울에 도착했다. 1896년 11월에 배속되었으나, 1897년 3월 6일 전주에 정착할 수 있었다. 첫 일요일인 3월 7일 테이트의 ‘사랑’에서 8명의 회중과 예배에 참석했다.⁷⁷⁾ 해리슨은 전주에서 자신의 시간을 전도사업과 의료사업으로 나누어야 했다. 다른 곳의 경험으로 진료실의 업무가 사람들의 편견을 극복하는데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에 온 첫 2년 동안 일기를 썼고, 이는 스테이션 초기 사업에 대한 소식을 이해하는 훌륭한 자료가 되고 있다.⁷⁸⁾

해리슨 일기에 따르면 1897년 10월 1일 남성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실 겸 예배당 건축을 위해 서문 밖에 부지를 마련하였다.⁷⁹⁾ 일용노동자를 고용하여 직

77) W. B. Harrison, *Journal*, March 8, 1897.

78) George Tompson Brown, 1963, 앞의 학위논문. pp.119-121. 여기서 소개한 일기가 바로 Harrison's Journal이다.

79) George Tompson Brown은 1897년 10월 1일을 해리슨 진료실 오픈일로 적었으나, 해리슨 저널에 따르면 이날은 레이놀즈의 주선으로 진료실을 위한 서문 밖 부지를 마련한 날이다.

접 공사를 진행하였고, 1898년 봄 예배당과 진료실을 완공하여, 새로운 선교 터전이 조성되었다. 해리슨은 몇 달 동안 그곳에서 환자를 치료했지만, 의료와 복음 전도 둘 다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의료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이 길거리 예배당에 주일 오후가 되면 5-40명까지 사람들이 드나들어 서문 밖 장터 선교에 최적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복음서와 도록을 판매하는 책방으로 변신하였다.⁸⁰⁾

5. 화산 이주 시기와 공간 배치

1) 화산 이주 시기

1900년 5월 1일 정부 당국의 느린 일처리로 건축이 연기된 기간, 선교사들 내부적으로도 건축을 제때 시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다.⁸¹⁾ 1899년 10월 해리슨 부인(리니 데이비스)은 7년 만에 안식년을 갖게 되었는데, 선교위원회의 배려로 남편인 해리슨이 동반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⁸²⁾ 또한 1900년 3월 14일 레이놀즈가 이주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날, 이틀 전에는 테이트 남매가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떠났었다. 여기에 레이놀즈 가족도 갑작스런 어머니의 건강악화로 인해 미국에 가도록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⁸³⁾ 결국 전주스테이션에는 잉골드를 제외한 모든 선교인원이 미국에 돌아간 상황이 되었다. 이로써 화산의 건축문제는 그대로 멈추었고, 선교사들이 돌아오기까지 2년 동안 완산에 머물게 되었다.

1900년 11월 10일 해리슨 부부가 전주에 돌아온 후, 한 시즌이 지나서야 화산의 건축이 재개되었다. 1901년 6월 정부에서 현황을 파악하러 방문하였는데, 약속한 1901년 가을이 지난 후에는 월 25엔의 점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다.⁸⁴⁾ 그러던 중 1901년 9월 말 테이

80) *Annual Report, 1899*, 앞의 책. “Individual Report”

81) 본고 <표2> 잉골드가 기록한 협상일정 참조.

82) *The Missionary*, February, 1900, “Mission Personal”

83) 고근 옮김, 2018, 앞의 책, 164쪽 (앞의 *Personal Report*, Vol. 18, Mattie B. Ingold, pp.173).

84) *The Missionary*, February, 1902, “General Report od Chunju Station” by Harrison (September, 1901). 전도 인원이 없고, 우선 기거할 집이 있으며, 많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족 등 복합적 사유로 건축이 지연되고 있었다.

트 남매가 안식년에서 돌아옴에 따라 건축공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었다.

1902년 9월 남장로교 선교본부 연례회의에서 돌아온 해리슨 부부가 가장 먼저 화산으로 이주를 마쳤다.⁸⁵⁾ 이후 1902년 10월 11일 잉골드의 병원과 진료실이 이사하였으나, 진료소는 10월 18일에 개시되었고, 11월 1일 새집으로 입주하였다.⁸⁶⁾ 최종적으로 1903년 1월 테이트 선교사 남매의 집이 완성되어 이사를 완료함으로써, 전주스테이션의 화산시대가 정식으로 개막하였다.⁸⁷⁾

2) 화산 공간 배치

1904년 5월에 작성된 1903년 연례회의 보고서에는 화산으로 이주한 전주스테이션의 건축현황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⁸⁸⁾

화산에 이전한 전주스테이션 소속 전체 선교사가 새로운 집을 갖게 되었다. 두 명의 독신자가 살기에 적합한 집 두 채, 가족이 사용할 집 한 채, 진료소 한 곳과 작은 병원 하나를 지었다. 여학교로 사용할 작은 한국집도 확보하였다.

당시 전주스테이션 소속 선교사 중 레이놀즈 가족은 성경번역을 위한 준비로 미국 체류가 길어졌고, 한국에 와서도 전주에 재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해리슨 부부와 테이트 남매, 그리고 잉골드를 포함한 5명의 선교사가 화산에 이주를 완료한 것이다.⁸⁹⁾

「The Record」라는 매거진에서 은퇴 후 미국에 거주하는 테이트 부인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내용과 자료사진이 『*Personal Report*』에 남았는데, 아쉽게도 정확한 인터뷰 일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행히 다음 페이지에 각 주택의 활용목적용을 기재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1903년 보고서를 토대로 건축 현황을 확인하였다. 잉골드의 메모가 적힌 사진은 촬영시점이 화산으로 이주한 직후임을 알 수 있다.⁹⁰⁾

85) *The Missionary*, October, 1902, W. D. Reynolds, "A KOREAN CHRISTIAN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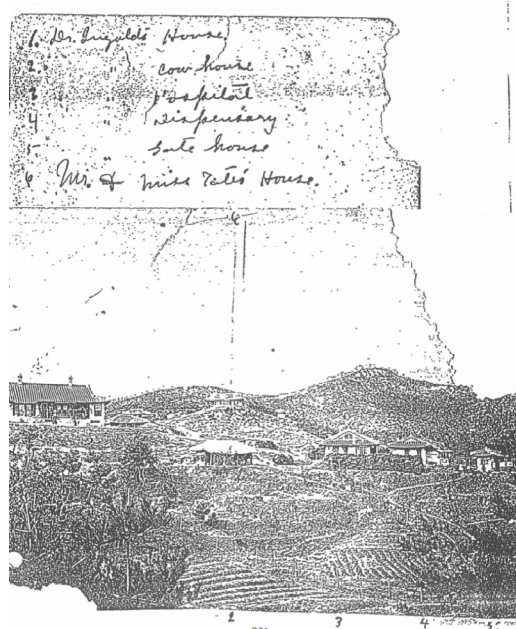
86) 고근 옮김, 2018, 앞의 책, 202쪽(앞의 *Personal Report*, Vol. 18, Mattie B. Ingold, pp.202-205).

87) *The Missionary*, October, 1902, 앞의 글

88) *The Missionary*, May. 1904, "Report of Chunju Staion for 1903"

89) 제국신문 1902. 4. 5. 雜報 "全州外人: 미국예수교사 5인, 범국천주교선교사 1인, 일본상민 9인, 청국상민 5인"

보고서에서 표현한 ‘가족이 사용할 집 한 채’는 해리슨 부부의 집이고, ‘두 명의 독신자가 살기에 적합한 집’은 테이트 남매의 집과 잉골드의 집(또 다른 독신 여성과 함께 살게 될 single ladies House)을 의미한다. 또한 병원과 관련 하여 ‘Gate House’라 표현된 대기실이 추가되었는데, 보고서 작성 이후 지어진 것인지, 이미 완공되었으나 부속건물로 여겨 목록에서 제외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림 12〉 잉골드의 화산 메모

<그림 13>은 메모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04년 5월 이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스테이션 화산의 사진 위에 해당 건물을 연결하여 표기한 것이다.⁹¹⁾

90) 앞의 *Personal Report* Vol. 18, Mattie B. Ingold, pp.200-201. “Story Of Ingold Sisters Is Told In Interesting Interview; Brother Here” 뒷페이지에 사진메모가 편집되어 있는데, 기사의 일부인지 별도 자료인지는 불명확하다.

91) <그림 12>에서는 가장 먼저 이주를 마친 해리슨집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내용이 Tate 가족의 추억담과 연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여학교는 작은 초가집이므로, 사진상 메모가 제외된 유일한 집 한 채가 해리슨집으로 추정되어, <그림 13>에 연구자가 표기하였다. 활용한 사진은 앞의 자료보다 두 채의 집이 추가된 상황이다.



〈그림 13〉 앞의 Mrs. Tate(Mattie. B. Ingold) 메모에 따라 1904년 이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명한 사진에 연구자 재정리

한편, 앞의 <표 1> 고종실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05년 6월 25일 “완산의 집은 어떻게 되었던가?” 하문하고, “이미 쓸모없이 된 이상 헐어버리고 다시 방을 꾸릴 수는 없다”는 명에 따라, “부(府)와 군(郡)에 각별히 신칙하면 틀림없이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행 결과를 아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이전 선교지에 있는 집들을 옮기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그 주택을 다시 팔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그 집값으로 15,000엔을 받았었는데, 그들에겐 1,600엔을 주었습니다.⁹²⁾

위는 1905년 12월 15일 전주교회의 목사였던 전킨 선교사가 켄터키주 스프링 스테이션의 알렉산더 박사에게 보낸 편지글 일부이다. 또한 다음은 1906년 3월 『The Missionary』에 실린 포사이드 선교사의 기고문 일부로서, 교회 이설 및 확장에 대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완산 언덕의) 선교사 집들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아주 빨리 망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전에 테이트 남매가 사용하던 거주처가 적절한 돈에 구매되었으며, 그 집을 옮겨오고 교회에 적합한 집으로 바꾸는 것은 전킨의 임무로 맡겨졌다.⁹³⁾

92) 이숙 옮김, 2022, 『윌리엄 전킨과 메리 전킨 부부 선교사 편지』, 보고서, 248~254쪽. 원문을 통해 오역을 수정함.

93) The Missionary, March, 1906, W. H. Forsyth, M.D., “THE WORK AT CHUNJU”

완산의 교회는 병원과 학교, 선교사주택이 화산으로 이주를 마친 이후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완산을 떠나야 했던 이유가 언덕 위 넓은 부지와 신축주택에 국한된 문제였을 수도 있다. 안식년에서 돌아온 해리슨이 화산의 주택건설보다 먼저 교회의 확장공사(1901년 봄)를 실행한 것은 교회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주군서문외교회(全州郡西門外教會)가 성립(成立)하다. 선시(先時)에 선교사(宣教師) 최의덕(崔義德, Tate)이 당지(當地)에 래주(來住)하여 전도(傳道)한 지 수년(數年)에 신자(信者) 30여인(三十餘人)을 자택(自宅)에 회집예배(會集禮拜)할새 김창국(金昶國) 김내운(金乃允)과 부인(婦人) 3명이 최선(最先)으로 세례(洗禮)를 받고 기후(其後) 선교사(宣教師) 전위렴(全緯廉, Junkin)이 시무(視務) 시(時)에 와제(瓦製) 30간(三十間) 예배당을 신축(新築)하니라.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의 기록이다.⁹⁴⁾ 최종적으로 1906년 테이트 선교사 남매가 사용하던 집을 서문 밖으로 이설·확장하였고,⁹⁵⁾ 전주군서문외교회의 시작과 함께 전주스테이션 완산시대는 완전히 마감되었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완산도형(完山圖形)」에 구현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전주스테이션 위치를 확인하고, 공간별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도출된 몇 가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종이 황실 성역화를 위해 세우고자 했던 ‘완산(完山)’ 단갈비는 황방산에서 가져온 돌에 당시 전라북도관찰사인 이완용의 전서(篆書)로 두 글자를 새겼고, 해서(楷書)로 적은 ‘광무4년 경자이월(光武4年 庚子二月 日)’을 측면에 새겨, 1900년 2월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② 완산도형은 완산의 풍수지리적 위치와 함께 완산칠봉이 지닌 위용을 표

94) 차재명, 2018, 主紀元一千九百二十八年, 『朝鮮예수교長老會史記 上』,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發行, 한국기독교사연구소, 83쪽.

95) 전주서문교회, 1994, 『사진으로 본 전주서문교회 100년』에서는 “1906년, 총공사비 3,500냥, 780평 대지, 건평 57평”

현하였고, 비(碑)를 세운 자리에 ‘수비(豎碑)’를 표기하여, 시행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③ 완산도형은 당시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선교사들이 정착한 완산 언덕의 범위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별지를 첨부함으로써, 선교사들에게 이주 요청의 당위성을 알리고, 협상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추가된 것이다.

④ 전주스테이션의 위치는 ‘청학산(靑鶴山)’이라는 별칭을 가진 완산 언덕임을 규명하였고, 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당대의 지도와 비교한 후, 현재의 위성지도 위에 표시하였다.

⑤ 전주스테이션의 완산 부지는 총 4차례(1893년 8월, 1894년 4월, 1895년 11월, 1897년 6월)에 걸쳐 확보되었다. 동학으로 정착이 지연되어, 1896년 1월 전주스테이션을 시작하였으며, 1897년 7월 18일 첫 세례자가 배출된 후, 9월 당회가 조직되었다.

⑥ 완산도형에 구현된 ‘미국인점옥처(美國人占屋處)’ ‘와가삼처(瓦家三處) 초가오처(草家五處)’는 지도의 제작 시점인 1900년 초 전주스테이션 자산현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섯 채의 초가집은 교회 1채, 선교사주택 3채, 진료실 1채로 구성되었고, 언덕 위의 기와집 3채는 1897년 12월 입주한 레이놀즈 선교사 가족의 주택 1채와 부속건물인 창고 1채, 그리고 1898년 1월 입주를 마친 테이트 선교사 남매의 주택 1채를 표현한 것이다.

⑦ 의료선교를 위해 1898년 11월 3일 오픈한 진료실 위치는 완산도형에 그려진 우물 옆 작은 초가집이라는 추정의 개연성도 확보되었다.

⑧ 화산으로 이전이 완료된 시점은 1903년 1월 이후이며, 당시의 건축 현황을 알 수 있는 메모가 적힌 사진이 확인됨에 따라, 각 건물의 위치와 목적성을 표기하여 제시하였다.

⑨ 완산 언덕 위 테이트 선교사가 살던 신축주택을 정부의 제안으로 적절한 가격에 재구입하였고, 이는 1906년 서문 밖 부지로 이설이 완료되어 ‘전주군 서문의교회’로서 그 시작을 열게 되었다.

상기 결과로써 본 연구는 전주스테이션 완산시대의 시작부터 마감까지 시·공간적 변화과정을 탐색하여 발표한 최초의 성과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원문자료 수집의 한계 때문인지 초기 개신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자별로 해석이 상이하여 시간적 신뢰도 확보를 어렵게도 하였다. 선교사 기록물은 영문의 자필(필기체) 및 타자로 기록되었고, 대부분의 기록물이 미국에서 관리되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 연구장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어려

운 여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연구를 지속해온 선행연구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최근 국내외 디지털 여건이 개선되면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원자료들이 상당수 개방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초기 개신교는 어떤 종교보다 더 현실적으로 민중들의 생활에 응답한 실천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당시 선교활동은 선교·의료·교육이라는 삼각선교(triangle method)의 틀로 구성된 스테이션 전략으로서, 네비우스식 선교방식이었다. 이는 개신교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 선교사 개인의 숭고함에 초점을 두기보다, 스테이션 전략과 조직적 선교정책을 핵심으로 인식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미션 스테이션의 역할과 의미를 근대사회의 형성과 민족 운동에의 기여라는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이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역사로 재구성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⁹⁶⁾ 그러나 완산과 화산에 남겨진 선교사 주택 등 유형적 자원을 발굴·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황이 안타깝다. 학제 간 교류와 융합연구를 통해 지역개발과 관련된 콘텐츠 활용 및 관광자원화로 연결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본 연구과정에서,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사진정보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정합적 근거를 찾아 함께 공유하였다. 그럼에도 공론화가 필요한 두 가지 선행사례를 아래에 정리하여 향후 살펴야 할 과제로 제기한다.

2015년 전주 최초의 교회 일명 ‘은송리 예배당 터’가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⁹⁷⁾ 전주시가 은송리 예배당 터로 확정하여 안내판을 세운 곳은 완산2길과 기령당길이 만나는 길목으로서, 현재 ‘좋은교회(서완산동 1가 168, 완산1길 31)’와 인접해있다. 그러나 당시 위치를 비정한 객관적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이곳은 전주스테이션 서북쪽 경계 밖에 해당한다. 최근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 역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 순례길 조성 및 활용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정확한 정보와 순례자원의 올바른 가치발굴을 위해서 재론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덕주(2007)는 전주스테이션에서 전개되었던 삼각선교의 흔적을 따라 자원과 연결한 영역별 스토리텔링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내용은 서문교회 고(故) 김대전 장로의 증언을 토대로 옛 선교사집 위치를 동완산동 2가 307-1(현 완산4길 행운수퍼 옆 공터)로 비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곳

96) 원도연, 2012, 앞의 논문.

97) 기독교신문(2015. 12. 05), “호남 최초 은송리 교회당 위치 확정”. <https://www.kidok.com/news/article>

은 완산도형에서 선교사 주택 초가집 3채가 표기된 위치와 50m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 시대별 지도를 살펴보면 청학산 전면부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상당 부분이 깎여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옛 청학산 범위의 시작점에 해당한다. 완산도형을 기준으로 언덕 위 신축건물과 백운정마을 등 비교자원과의 공간구조를 비교할 때 그 위치적 개연성은 상당히 미약하다. 그러나 완산도형이 정확한 축척에 의한 근대식 지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인 관심과 토론을 통해 정확한 자원발굴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논문접수일: 2024. 10. 23. / 심사개시일: 2024. 12. 01. / 게재확정일: 2024. 12. 23.

참고문헌

1. 지도

- 완산도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완산부지도십곡병풍(19세기, 보물),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전주지도(189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10,000 전주14호(1817측량 1918년 제판3도 인쇄본. 1919년 육지측량부 인쇄 발행) 대한역사연구소 소장.

2. 단행본

- 고근 옮김, 2018, Mattie B. Ingold.(Mrs. Tate), 『마티 잉골드 일기』, 예수병원.
김상훈·류희정 옮김, 2005, 『남행월일기(1201년 3월)』, 이규보작품집 2, 『조물주에게 묻노라』, 보리.
김수진, 2002, 『매계교회 100년사(1900-2000)』, 쿤란출판사.
김제문화원, 2001, 향토문화자료 제20호 『石亭 李定稷 遺藁(I)』, 도서출판 학예사.
백종근, 2023,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걷다. 조선 선교사 하위럼의 선교행전』, 헤드림출판사.
송상훈 옮김, 2022, 『기전여학교 교장 랭킨 선교사 편지』, 보고서.
이덕주, 2007, 『전주비빔밤과 성자이야기』, 도서출판 진흥.
이숙 옮김, 2022, 『윌리엄 전킨과 메리 전킨 부부 선교사 편지』, 보고서.
전주문화원, 2023, 『古地圖에 나타난 全州地名』, 신아출판사.
전주서문교회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1994, 『사진으로 본 전주서문교회 100년(1893-1993)』, 전주서문교회.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2008, 『국역 全州府史(1943)』
전주시·전주문화원, 2009, 『完譯 完山誌』, 신아출판사.
차재명, 2018, 主紀一千九百二十八年『朝鮮예수教長老會史記』上, 朝鮮예수教長老會總會發行, 한국기독교사연구소.
천사무엘 외 2인 옮김, 2010, 『한국 선교 이야기 -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 역사(1892-1962)』, 도서출판 동연.

3. 국내논문

- 구사회, 2024, 「근대계몽기 석정 이정직과 학산 정인기의 교유 관계와 교유시에 대하여」, 『온지논총』 제78집, 온지학회, 123-151쪽.
- 송영애, 2021, 「선교사 기록에 나타난 전주의 풍습 : 마티 잉골드의 자료를 중심으로」, 『전북연구』 제4집,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161-198쪽.
- 송현강, 2008, 「충청·전라지역 기독교 문화유산의 현황과 내력」, 『한국기독교와 역사』 2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97-129쪽.
- _____, 2010, 「레이놀즈의 목회사역」, 『한국기독교와 역사』 3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35-56쪽.
- 원도연, 2012, 「19세기 미션스테이션의 근대성과 기념의 문제」, 『지방사와 지방 문화』 제15권 2호, 역사문화학회, 35-75쪽.
- 이은선, 2019, 「해방 후 전주스테이션과 장로교회들이 전주 발전에 미친 영향」,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2집, 한국교회사학회, 109-148쪽.

4. 원문자료

-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from The Executive Committee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Southern Presbyterian Church), 1898, Nashville, Tennessee, United States of America., “Chunju, Historical Note”
-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from The Executive Committee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Southern Presbyterian Church), 1899, Nashville, Tennessee, United States of America.(For The Year April 1, 1898, To April 1, 1899)
-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from The Executive Committee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Southern Presbyterian Church), 1900, Nashville, Tennessee, United States of America.(For The Year April 1, 1899 To April 1, 1900) “Chunju Station”
- Christian Observer, Oct. 9, 1895, W. D. Reynolds., “Before and After the War”
- Christian Observer, May. 10, 1905, W. H. Forsythe., Foreign Missions. Korea and the Progress of the Gospel, “Our Part of the Work”
- George T. Brown., 1963, A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 FROM 1892 TO 1962,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Th.D, Religion, general, p.62.

Korea Mission Field, Vol.17, no.11, Nov. 1921. pp. 224-225., L. B. Tate,
“Opening of the Mission”

Mrs. Anabel Major Nisbet., 1920, Day in and day out in Korea, Richmond, VA.: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Personal Report of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in Korea, 1892-1986, Vol.
18, M. B. Ingold., pp.105-206, 韓國基督教歷史研究院 編.

Personal Report of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in Korea, 1892-1986, Vol.
18, L. B. Tate., pp.207-264, 韓國基督教歷史研究院 編.

The Missionary, October. 1894, W. D. Reynolds., (Seoul, Korea, June 30, 1894).
“Prospecting for Satation in Chulla-do/Chunju”

The Missionary, September. 1893, W. M. Junkin., “Preparing for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July. 1894, W. M. Junkin.,(Seoul, Dec. 13, 1893), “A Visit to
Our New Station”

The Missionary, October, 1897, Mrs. Reynolds., “Chunju Mission House” (July
3, 1897)

The Missionary, July. 20, 1898, Mrs. Reynolds., “Chunju Mission House”

The Missionary, September, 1898, “Wedding in Korea”

The Missionary, October, 1898, M. B. Ingold., M. D., “Phases of Korean Life”
(July).

The Missionary, October. 1899, M. B. Ingold., M. D., “A Korean Dispensary”

The Missionary, February, 1900, “Mission Personal”

The Missionary, October. 1901, In and Around Chunju Mrs. Harrison., “Lost of
the Won San Property”

The Missionary, October. 1902, W. B. Harrison., (July 6, 1901) “From Nov. 10,
1900 To Sep. 1, 1901”

The Missionary, October. 1902, W. D. Reynolds., “A Korean Christian Home”

The Missionary, February. 1904, M. B. Ingold., M. D., “Chunju”

The Missionary, May. 1904, “Report of Chunju Staion for 1903”

The Missionary, October. 1904, W. B. Harrison., “Chunju Note”

The Missionary, March, 1906, W. H. Forsyth, M.D., “The Work at Chunju”

W. B. Harrison., Journal (1895-1897)

5. 인터넷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go.kr> (온라인사본신청 No. C202310230009)>

국립전주박물관, <<https://jeonju.museum.go.kr>>

기독교신문 2015년 12월 5일,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

동아일보 1931년 4월 19일 3면,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제국신문 1902년 4월 5일 2면,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https://sillok.history.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Reynolds, W. D., 1894, Chulla-Do Trip. <archive.org/missionariesreyn4520unse.pdf>

<Abstract>

A Study on the Location of Jeonju Station for the Early Protestant Missionaries through 「Wansan Dohyeong」

Kim, Kyeong-mi*

「Wansan Dohyeong(完山圖形)」is estimated that has been painted in 1900 during King Gojong's promotion of the holy land for Wansan. It is the most notable feature of this map what a memo as 'The residential site for American(美國人占屋處)' on the right lower side of the mountain, and also it includes detailed numbers as '3 tiled and 5 thatched houses(瓦家三處 草家五處)'. Jangseogak, where it is stored, explains that it is "a pictorial map created around the castle of Jeonju in Jeolla-do and the residences of American missionaries."

This study focused on 「Wansan Dohyeong」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an important data for confirming the historical situation and settlement history of the American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who established a Station in Jeonju. The period when the early Protestant missionaries arrived in Korea was a period of political and diplomatic turmoil in the country, and in particular, the period of preparation for the settlement of Jeonju coincided with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refore, the history of early Protestantism is not a matter of interest in fragmentary religious resources, but rather a clue to examining the process of forming modern culture through education and medical missions and the history of popular reform from a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In this report, the location of the early Jeonju Station pioneered by American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is marked on a modern map based on the geographical interpretation implemented in 「Wansan Dohyeong」. In addition,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sidential space prepared at Jeonju Station and the use of the buildings for each purpose were identified and clarified through various records (reports, letters, diaries, etc.) of the missionaries.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spatial arrangement created immediately after the

* Research Professor, Tourism & Food Service Research Institute, Jeonju University.

relocation to Hwasan were confirmed and organized. This study is important meaning had examined the process of establish time and spac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early Protestantism's Station on Wansan in Jeonju.

Key Words : WansanDohyeong, The Early Protestantism in Jeonju, The American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Jeonju Station, Cheonghak-hill

